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진주시 덕진구 인우동1기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게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진주시 덕진구 민성동1로 55, 8층 805호(민성동, 오백아파트1차)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6년 3월 9일(월) 제 3275호

전북도, 피지컬AI 기반 'K-팩토리' 시동 로봇·데이터 '비빔밥' 제조혁신

전북대 중심 1조 AXR&D 추진
협업지능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새만금 58조 투입 AI 데이터센터
현대차 "전방위 지원" 힘 보태
AI융합대학원 설립 전문 인력 양성

〈2〉전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잡고 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의 미래를 설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첨단 AI 실증단지 조성부터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센터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체계까지 전북을 'K-팩토리' 거점으로 세우겠다는 구상.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타운홀미팅에서 피지컬 AI의 본질을 비빔밥에 빗대어 풀어냈다.

밤·고기·채소라는 이질적인 재료들이 고추장 하나로 깊은 풍미를 빚어내듯, 이 기종 로봇과 복잡한 공정 기기·현장 데이터·속된 기술이 인공지능이라는 연결 고리를 통해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으로 진화한다는 것이다. 배 장관은 '스스로 학습하고 협업하며 진화하는 공장이 전북에서 완성되고, 이 모델이 비빔밥처럼 세계로 뻗어나가는 날을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구상의 핵심 동력은 전북대를 거점으로 올해부터 5년 간 추진되는 '전북 AX R&D 사업'이다.

약 1조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지난해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 랩 성과를 발판 삼아 피지컬 AI 공장 구현에 필요한 요소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간다.

핵심은 협업 지능 기술이다. 비빔밥의 비법 고추장에 해당하는 이 기술은 이기종 기계와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운영 소프트웨어다. 외산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피지컬 AI 협업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다기종 로봇이 한 몸처럼 작동하는 모델을 실증한다는 것이 과기부의 방향이다. 여기에 물류 로봇·정밀 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권익·성평등 확산 다짐

전북도는 지난 6일 제118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친화기업 제논전장(주) 방문 기념행사를 마련, 방상운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국장, 허명숙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김성훈 농업은행 전북본부장이 참석해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관련기사 4면) <사진=전북자치도>

립·AI 품질검사 등 공장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응용기술을 엄선해 실증함으로써, 개별 기술들이 어우러진 하나의 완성된 통합 시스템을 구현한다.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도 새만금에서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올해 설계에 착수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 AI 데이터센터는 GPU 5만 장·100MW급 전력이 투입되는 대형 시설로, 투자 규모만 약 5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달 27일 군산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공식 약속하며 이 흐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과기부는 전력·통신은 물론 규제 혁신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으로 새만금이 서부권 AI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피지컬 AI 실증 모델을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전략도 추진한다. 생산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잇는 지능형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제조업 현장 중심의 적용 과제를 확대해 실증 성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고도화를 함께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기술·인프라와 함께 인력 기반 구축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지난 2023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에는 AI 분야에서만 1만 2,800명의 신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전북에 고급 연구인력 확보·재직자 전환 교육 상시화·현장 실무인력 양성의 세 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피지컬 AI 특화 인력양성기관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1조 원짜리 실증단지가 단순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산업 확산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도는 전북대를 중심으로 AI 융합대학원 등 전문 인재양성 거점을 마련해 고급 연구인력 확보와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인재 공급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전북의 피지컬 AI 전환 전략이 과기부의 국가 AX 계획과 본격적으로 맞물리게 됐다"며 "실증에서 확산으로, 인프라에서 인재로, 나아가 공장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전북의 피지컬 AI 전환 전략이 과기부의 국가 AX 계획과 본격적으로 맞물리게 됐다"며 "실증에서 확산으로, 인프라에서 인재로, 나아가 공장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전북의 피지컬 AI 전환 전략이 과기부의 국가 AX 계획과 본격적으로 맞물리게 됐다"며 "실증에서 확산으로, 인프라에서 인재로, 나아가 공장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전북의 피지컬 AI 전환 전략이 과기부의 국가 AX 계획과 본격적으로 맞물리게 됐다"며 "실증에서 확산으로, 인프라에서 인재로, 나아가 공장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선정 체류형 치유관광 '탄력'

문체부 공모 전국 6곳 포함
올해 4억5천 '미중물' 국비
최대 3년간 13억 5천 지원

전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로 선정됐다.

지난 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는 이번 사업으로 고유 치유 자원과 결합한 관광상품 개발, 민·관·학 연계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체부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역으로 대구·부산·인천·강원·전북·충북 등 6곳을 선정했으며 올해 4억 5000만원의 미중물 예산을 지원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3년간 최대 국비 1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 2024년 8월 전북이 이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당위성을 마련한 '치유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김윤덕 장관

2025년 3월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김 장관은 문체부 사업 공모 시작 후엔 심사부터 선정 결과까지 국토부 장관

관직을 수행하면서도 문체부 및 전북도와 소통하며 챙겨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전북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전북 내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체류형 관광과 웰니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관광 클러스터 사업자 선정 가능성을 밝힌바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이 숲과 자연이 맛있는 전북 관광이 활성화돼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웰니스 관광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지친 사람들이 전북을 방문해 쉼과 치유, 안정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이 숲과 자연이 맛있는 전북 관광이 활성화돼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웰니스 관광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지친 사람들이 전북을 방문해 쉼과 치유, 안정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이 숲과 자연이 맛있는 전북 관광이 활성화돼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웰니스 관광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지친 사람들이 전북을 방문해 쉼과 치유, 안정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이 숲과 자연이 맛있는 전북 관광이 활성화돼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웰니스 관광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지친 사람들이 전북을 방문해 쉼과 치유, 안정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이 숲과 자연이 맛있는 전북 관광이 활성화돼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웰니스 관광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지친 사람들이 전북을 방문해 쉼과 치유, 안정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 순창 장군목 생태관광지 진입도로 공사 '박차'

전북개발공사는 최근 순창 삼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차분의 공사 착공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315억을 투입해 장군목 생태관광지 진입도로 L=7.6km, B=8.0m 규모로 개설된다. 우기 시 현재도로 일부 구간 침수로 주민 차량교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진입도로 개설을 통해 인근 마을주민 통행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 광역 유치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분 공사는 지장물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배수시설 및 옹벽 설치 등으로

20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통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용광산 자연휴양림 관광사업 활성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며, "공사 기간 동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는 2차분 공사를 시작으로 향후 해빙기 점검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공사기간 동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는 2차분 공사를 시작으로 향후 해빙기 점검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공사기간 동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는 2차분 공사를 시작으로 향후 해빙기 점검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공사기간 동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 중심, 으뜸가짐

2026정음벚꽃축제

2026. 4. 3. (FRI) ~ 4. 5. (SUN)
정음천변 어린이축구장 및 벚꽃로 일일

1일차 정승환 | 김용임
LIGHTSUM(라잇썸)
카드디오

2일차 민경훈
정슬
아리안

3일차 예린
한강
강혜연

문의 (정음시청 관광과 063)539-5231~5

정음시

※벚꽃 개화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북도, 2조 투입 소득·돌봄 아우른 노인복지 강화

52개 사업 2조 481억 투입 추진 노인일자리 8만 9633명 확대 통합돌봄 등 지역 지원 강화 건강·여가 복지 서비스 확대

전북도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노인복지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6일 도에 따르면 4개 분야 52개 사업에 총 2조 481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노후소득 보장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여가활동 지원 확대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분야별로는 노후소득 보장 1조 7,300억 원, 맞춤형 돌봄 2,525억 원, 예방적 건강관리 253억 원, 여가활동 지원 401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특히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전북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25년 기준 26.61%로 전국 평균(21.21%)보다 높은 수준이다. 도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돌봄, 건강관리, 여가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한 역량활용 일자리 등 노인일자리 사업규모를 8만 6,714명에서 8만 9,633명으로 확대한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 6만 2,991명, 역량활용 2만 1,063명, 공동체사업단 4,014명, 취업지원 1,565명을 지원한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를 32만 4천 명까지 확대해 소득 하위 7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34만 9,700원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도내 전역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며 총 118억원이 투입된다. 통합돌봄은 보건 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 중심 지원체제로 기존 돌봄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자체 특화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 3만 7,900명, 응급안전서비스 2만 6천명,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 180명을 지원한다. 아울러, 무료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확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등을 통



지난 1월 27일 전북도 병오년 어르신 점검행사 <사진=전북도>

해 취약 어르신 보호체계를 촘촘히 운영한다.

AI·IoT를 활용해 의료접근성이 낮은 어르신 4,000명에게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대예방·조기검진 8만 1천명, 한의치매예방사업 430명을 추진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전북형 노인결핵검진 사업을 통해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자살 예방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위기 어르신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한다.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및 IPTV 설치를

4,000개소까지 확대하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경로당 7,221개소에 냉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25개소 운영 및 복지관-경로당 연계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 여가복지 기능을 높인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소득·돌봄·건강·여가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어르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도민 공약 제안 접수받아

지방선거 앞두고 정책 공모 QR코드 통해 31일까지 참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난 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내가 만드는 전북의 미래’ 공약 접수를 오는 3월 31일까지 받기로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이번 공약 제안 접수는 지역 현안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이끌어 내고 도민 참여를 통해 신뢰 기반의 당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공약은 도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실현 가능한 중심으로 제안하면 된다. 참여방법은 도민들의 접근성과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거리 현수막 QR코드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 홈페이지 배너 QR코드 ▲웹카드의 QR코드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분야는 산업, 문화·체육·관광, 농업, 보건·복지, 도시·교통·주거, 교육, 청년·여성, 노동, 경제·일자리·소상공인, 환경·안전, 법률·제도 개선 등으로 세분화했다. 제안된 정책은 정책공약개발TF 검토를 거쳐, 채택된 내용은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된다.

전북특별자치도당 정책공약개발 TF 총괄위원 이동기 원광대학교 교수는 “이번 도민 공약 접수는 전북의 미래를 도민과 설계하는 ‘함께 만드는 선거’ 실현의 일환이다”며 “도민들의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본사 사령>

- △ 의원면직 신상수(부안)
- △ 임명 부안 주재 온봉기

- 3월 9일자 -

전북도, 지역특화 농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이달 31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기초 20개소·고도화 10개소 지원 기업당 최대 4억원 사업비

전북특별자치도도가 도내 농식품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인력난과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데이터 연동, 생산 최적화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도가 주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예산을 매칭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총 30개사로, 기초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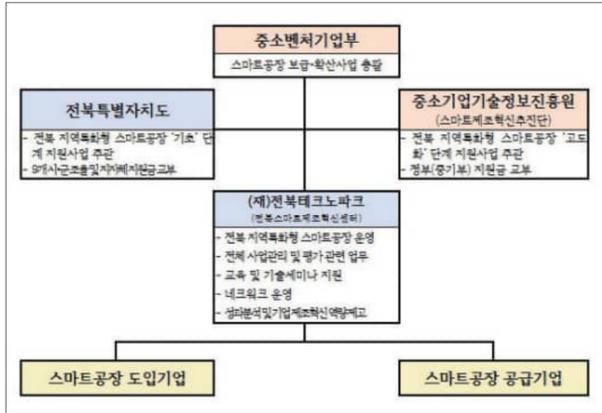
개소와 고도화 10개소로 나눠 지원한다.

기초 단계는 ICT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수준이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1억원 이내다.

고도화 단계는 생산설비·공정·자재 및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중간’ 수준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4억원 이내다. 특히 고도화 단계의 경우 정부 지원금 50%에 더해 도가 20%를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도는 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략 수립과 기술 지원, 마케팅 연계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참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추진 체계 <사진=전북도>

장은 “이번 사업은 농식품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전북 농식품기업이 전국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46%·국힘 21%...더블스코어 이상 격차

한국갤럽 3월 첫째주 조사 TK제외 모든지역서 민주 우세

‘한국갤럽’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6%로 국민의힘의 21%를 무려 25% 앞선 더블스코어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3월 첫째 주(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기본소득당 각각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6%를 기록했다.

이번 주 양당의 정당 지지도는 지난 해 대선 직후인 2025년 6월 둘째 주 같은 조사 때와 동일한 수치다. 현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최고 46%에서 최저 38%(9월 4째 주)를,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최저 19%(7월 23째 주)에서 최고 26% 사이를 오르내렸다.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민주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지지도 20%대 초 중반의 구도가 지속되다가 최근 한 달

간 양당 간 격차가 커졌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0%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1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6%였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17%, 인천·경기에서는 민주당 48%, 국민의힘 21%, 호남에서는 민주당 75%, 국민의힘 5%, 부·울·경 지역에서도 민주당 40%, 국민의힘 27% 등으로 민주당이 크게 앞섰고,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28%로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앞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65%가 긍정, 25%가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는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90% 이상으로 높았고, 부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도층은 7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 긍정률이 약 80%로 가장 높았고, 20대와 70대 이상은 50%대였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용담·옥정호 수질개선 대책 수립

2030년 TOC 1a등급 목표 조류 대응·모니터링 확대

전북도는 도내 주요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와 옥정호의 수질을 2030년까지 TOC(총유기탄소) 기준 ‘안정적 1a등급

(2mg/L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도는 TOC 농도를 1a등급(2.0mg/L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 유입 오염

원 관리 ▲호소 수질 안정화 ▲관리체계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두 호소에서 조류경보 발령이 반복되면서 수질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련됐다. 2025년 평균 TOC 농도는 용담호 2.1mg/L, 옥정호 2.3mg/L로 나타났다.

도는 상류 지역 생활·축산·농업 오염원 관리와 하수처리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조류 발생 시기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전복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력해 수질 관리와 오염원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해 주세요

커피전문점,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텀블러

스테인리스, 대나무 등의 재질 빨대·젓는 막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우산비닐

우산 빗물 제거기

편의점, 슈퍼마켓 등

비닐봉투

장바구니

김민석 총리 “새만금의 꿈 실현” 강조

김민석 총리, 현대차그룹 새만금투자계획·비전 청취 혁신성장거점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새만금개발청을 직접 방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방문은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계획에 따른 새만금 로봇·AI·수소 등 신산업형 혁신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 점검을 향해서다.

이날 김민석 총리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비전을 청취하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나아가 김민석 총리는 새만금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피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그룹은 9조원 투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했다

<사진=새만금개발청>

에 대한 새만금 로봇 제조공장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AI 수소 시 티 조성 계획 등을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대차그룹의 투자는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현실”임을 강조하며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력양성 ▷인프라 등의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후 김민석 총리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기본계획 주요 변경방향을 보고 받고 주요 참석자와 함께 효율적인 새만금개발 방안 등에 논의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김민석 총리에게 “전체 새만금개발 면적 80% 수준을 '40년까지 앞당겨 조성하고, 산업·도시용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30년까지 현재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때가 왔다”며 “실현할 수 있는 새만금의 비전과 계획을 꼼꼼히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평생학습 ‘마음 온(ON)’ 운영 기관 모집

학습문화활동 연계 전주형 회복 프로그램 운영 예정

전주시는 오는 13일까지 '2026년 전주형 평생학습 마음 온(ON) 편익점' 운영 기관을 모집한다.

사업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올해 각 권역별 학습공간을 활용해 상반기 8개소 내외의 '마음 온(ON) 편익점'을 지정할 예정이다.

신청된 기관은 전주시가 제시한 4개 프로그램 중 1개를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운영 프로그램은 △학습기반 치유형 '마음을 쓰다, 한글서예' △문화예술 자유형 '마음을 소리내다, 판소리' △인문학

향유형 '마음을 두다, 바둑' △생활회복 여유형 '마음을 쉬다, 밸런스 워킹' 등으로 구성된다.

모든 과정은 주 1회, 회당 2시간, 총 12회로 운영되며, 15~20명 규모의 소규모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영을 위한 강사료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학습매니저 활동비와 통합 홍보도 함께 지원해 운영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해 기관 자율 기획 방식이 아닌 시 지정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기관별 운영 편차를 줄이고,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e.jeonju.go.kr)을 참고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이동급식카드 시스템 4월 전면 개편 시행

신한카드(주)수행 업체 선정 선택권 확대·낙인감 해소 등

전주시 결식아동 위한 이동급식카드 시스템이 4월부터 전면 개편돼 시행된다.

결식아동 시스템 전면개편은 아동들의 △선택권 확대를 중심으로 낙인감 해소(가맹점 확대)와 카드 디자인 개선 등이

관련해 전주시는 '25년부터 카드회사들과의 협의를 진행해오며 최종 '25년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신한카드(주)를 수행 업체로 선정했다.

개편은 급식카드 이용 아동들의 △선택권 확대 △낙인감 해소를 위해 이용 가맹점을 늘리고 카드 디자인을 일반 금융사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후 시는 해당 카드사와 3년간의 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이동급식카드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성능 개선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

시는 새로운 카드 도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과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카드 교체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등 오는 4월 1일 시행 전까지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이동급식카드를 신한카드 가맹 일반 음식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돼 가맹점 수가 기존 1200여곳에서 9000여곳으로 대폭 늘어나 결식 우려 아동의 메뉴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카페와 주점, 포차 등 아동 급식 이용에 부적절한 업소는 가맹점에서 자동 제외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16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폭 넓은 지원 예정

전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2026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긴급생계비 항목을 신설해 지난해보다 1억8500만원을 추가 편성, 총 3억8000만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약 250가구를 대상으로 △ 긴급생계비 △주택 관련 대출이자 △월

세 지원 등 3가지 항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시비 50%와 도비 50%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된다.

또 신설된 긴급생계비 경우 상시 접수 가능하며 매월 말일까지 접수분을 익월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타기관과의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지원 규모는 대출이자와 월세 모두 매월 25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올해 추가 신설된 긴급생계비 경우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에 해당하

지 않은 전세 피해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100만원 한도로 1회 지원된다.

특히 대출이자·월세와 긴급생계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은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이사회 지원사업과 병행 추진돼 전북 도내 피해주택에서 전주시 지역 주택으로 이전한 세대에게는 최대 160만원 이사회가 살비로 지원된다.

이 경우 대출이자·월세 또는 긴급생계

비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북도에 피해 접수 후 국토교통부가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전주시민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가구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강한경제 실현 ‘예비 청년 창업자’ 발굴 나서

12일까지 신청 접수 특색아이템 창업 팀별 최대 1500만원 지원

전주시가 강한 경제 전주 위한 예비 청년 창업자 발굴에 나선다. 시는 이와 관련한 '2026년 전주시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지난 6일 전주시소통협력센터에서 개최했다.

설명회는 사업 주요 내용인 사업화 자금과 교육·컨설팅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를 활용해 청년 예비 창업

자 현장 질의응답을 시간을 갖고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특색 있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 예비 창업인에게 교육·컨설팅과 사업화 자금(팀별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2026년 전주

시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g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아동 유괴 예방’ 안전활동 실시

신학기 초등학생·학부모 대상 약취·유인·실종 사전 차단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대장 엄두석)는 신학기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약취·유인 및 실종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활동을 실시했다.

아중지구대는 관내 4개 초등학교 등·

학교 시간대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범죄·유괴 예방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교통사고 예방 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특히 학부모와 함께 등교하는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 등·하교 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기 △ 낯선 사람으로부터 간식이나 선물 받지 않기 △ 낯선



/정소민 기자

사람의 차량에 타지 않기 △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아동안전지킴이 집 들어가기 등 아동 유괴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엄두석 아중지구대장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하교 시간 학교 주변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어린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26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1일 5시간 주 25시간 근무 시급+부대경비 5000원 추가

전주시 2026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이 시작됐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인원은 총 90명이 모집된다.

참여자격은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재산 3억 원 이하 △근로능력 가능한 18세 이상-65세 미만 전주시민에 한해서다.

관련해 전주시는 신청자의 ▷연령 ▷가구 재산 ▷소득 ▷사업 참여 여부 ▷실업 기간 등을 종합해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직전 단계 포함 연속 3단계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4월 6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선발 참여자들은 △시내버스 회차지 △승강장 정비 사업 △한옥 마을 가꾸기 사업 △동문예술거리 조성(운영) 사업 등 총 35개 부서 55개 사업에 참가할 예정이다.

공공근로사업 조건은 1일 5시간 주 25시간 근무하게된다.

임금은 시급 10,320원과 부대 경비(간식비) 5000원이 별도 지급되며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참여희망시민은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26 전주출판학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기획부터 제작까지

독립출판 전 과정 실습 제공

전주시는 9일부터 전주시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을 통해 '26 전주출판학교' 상반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전주출판학교는 상반기 전자책 출간 과정과 하반기 독립출판 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에 참여자들은 기획부터 집필·편집·디자인·인쇄·유통까지 출판에 따른 전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이어 하반기 독립출판 출간 과정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하반기 참여자들은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접 기획과 디자인을 진행하며 샘플북 제작과 인쇄 발주까지 경험하는 실전형 독립출판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시는 실제 책을 출간한 수강생에게는 '제5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어'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해 실제 판매 및 유통을 경험할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고립가구 발굴 지원사업' 모집

'마을보듬네트워크' 사업

'우리주도 공동체' 사업 운영

전주시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은 '2026년 고립가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은 전주시 지역 내 고립 위험 가구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관련사업은 △고립가구 발굴 '마을보듬네트워크' 사업 △고립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우리주도 공동체' 사

업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이를 위해 복지관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웃수선 △커피 및 빙아빵 나눔 등을 진행하며 사회적 고립 극복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은 도움이 필요한 고립 위험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예수병원 파키스탄 지역 보건 캠프 열어

파키스탄 카라치·사디빨리 지역

보건 캠프·비전트립 진행

전주 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PMCI)은 지난달 26일부터 3월 1일까지 파키스탄 카라치 및 사디빨리 지역에서 지역 보건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파키스탄 단기선교팀은 김상균 국제의료협력단 국제본부장, 양성열 소화기내과 과장, 임정규 영상의학과 PA, 김동건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 등 예수병원의 전문 의료진과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선교팀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디빨리 지역의 빠끄리 종족 마을을 직접 방문해 보건 캠프를 열고 질병 예방 및 맞춤형 진료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람쉬풀리 마을에서도 보건 및 진료 캠프를 진행하여 초등학생 약 100여명의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그중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아동 25명에게 집중 진료를 제공하는 등 다음 세대의 건강을 세심하게 돌보았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린 소화기내과 진료와 영상의학 검사, 재활 물리치료 등을 통해 현지 주민과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사랑의 인술을 전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의료 혜택 제공을 넘어 '현지 자생적 지역 구조 수립'과 '선교 네트워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선교팀은 먼저 현지 교회 리더들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 세미나를 개최해 영적·육체적으로 지역사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든든한 영적 네트워크를 다졌다. 나아가 향후 마을의 보건과 사업을 직접 이끌어갈 8명의 현지인 훈련자를 구성하고 집중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전주 예수병원은 매년 국제의료협력단을 통해 전 세계 의료 취약 국가를 방문하여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 선교 허브 병원으로서 현지 보건 인프라 구축 및 자립 모델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정소민 기자

중기부, 중동 상황 '긴급 물류바우처' 신설

중소기업 영향 점검 회의 개최...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추진

중기부는 지난 6일 중소기업 유관 협단체와 '중동 상황 중소기업 영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중동 상황 관련 품목별 수출 중소기업 현황을 둘러보며 수출 중소기업 피해·애로사항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시작한 중동 국가 수출 피해·애로 접수 결과(3월 5일 오후 6시 기준) 총 80개사 중 64건 피해·애로 및 우려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피해·애로 사항으로는 △운송차질 발생 71.0%(22건) △대금 미수금 38.7%(12건) △물류비 증가 29.0%(9건) △출장 차질 16.1%(5건) △계약비류 12.9%(4건) 등으로 영공 및 호르무즈 해협 폐쇄, 중동 바이어 향한 취소, 선적

수출보험 비용 상승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주요 우려 사항으로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운송차질 우려 66.7%(22건) △바이어 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 어려움 등 15.2%(5건) 등으로 확인됐다.

중동 상황 피해·애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를 통한 국제운송비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보증 공급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영공 및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따른 운송차질 어려움이 가장 큰 점을 고려해 중동 지역에 특화된 '긴급 물류바우처'를 신설해 물류 애로를 완화하고,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한 전략적 수출 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수출 상담·전시회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중동 상황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및 고환율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수입비용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경



<사진=중기부>

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원부자재 수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특별만기연장을 3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애로를 실시간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감도 높은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지원하

겠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물류바우처'와 고환율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신속히 준비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사진=북전주농협>

권은석·이희자 부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

북전주농협 지역서 곡물 재배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 지역에서 벼·밀·보리를 재배하는 권은석·이희자 부부 농가가 농협중앙회에서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인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했다.

새농민상은 자립·과학·협동의 농업정신을 바탕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농업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현장 중심의 모범 농가에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다. 권은석·이희자 농가는 벼 중심의 전통적 농사 방식에서 나아가 밀·보리 이모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며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국산 밀과 보리 재배면적을 꾸준히 확대하고, 파종부터 수확까

지 체계적인 재배 관리와 품질 균일화에 힘써 고품질 곡물 생산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은석·이희자 농가는 "땅을 지키는 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을 실천해 온 노력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벼·밀·보리 재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이번 새농민상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 지역 농업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현장 중심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이우광 조합장, 권은석·이희자 농가, 벼 중심의 전통적 농사 방식에서 나아가 밀·보리 이모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며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국산 밀과 보리 재배면적을 꾸준히 확대하고, 파종부터 수확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은석·이희자 농가는 "땅을 지키는 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을 실천해 온 노력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벼·밀·보리 재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이번 새농민상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 지역 농업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현장 중심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이우광 조합장, 권은석·이희자 농가, 벼 중심의 전통적 농사 방식에서 나아가 밀·보리 이모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며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국산 밀과 보리 재배면적을 꾸준히 확대하고, 파종부터 수확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은석·이희자 농가는 "땅을 지키는 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을 실천해 온 노력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벼·밀·보리 재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이번 새농민상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 지역 농업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현장 중심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이우광 조합장, 권은석·이희자 농가, 벼 중심의 전통적 농사 방식에서 나아가 밀·보리 이모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며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국산 밀과 보리 재배면적을 꾸준히 확대하고, 파종부터 수확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은석·이희자 농가는 "땅을 지키는 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을 실천해 온 노력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벼·밀·보리 재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이번 새농민상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 지역 농업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현장 중심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이우광 조합장, 권은석·이희자 농가, 벼 중심의 전통적 농사 방식에서 나아가 밀·보리 이모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며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국산 밀과 보리 재배면적을 꾸준히 확대하고, 파종부터 수확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은석·이희자 농가는 "땅을 지키는 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을 실천해 온 노력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벼·밀·보리 재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이번 새농민상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 지역 농업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현장 중심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이우광 조합장, 권은석·이희자 농가, 벼 중심의 전통적 농사 방식에서 나아가 밀·보리 이모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며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국산 밀과 보리 재배면적을 꾸준히 확대하고, 파종부터 수확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은석·이희자 농가는 "땅을 지키는 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을 실천해 온 노력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벼·밀·보리 재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이번 새농민상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 지역 농업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현장 중심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이우광 조합장, 권은석·이희자 농가, 벼 중심의 전통적 농사 방식에서 나아가 밀·보리 이모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며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국산 밀과 보리 재배면적을 꾸준히 확대하고, 파종부터 수확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은석·이희자 농가는 "땅을 지키는 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을 실천해 온 노력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벼·밀·보리 재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이번 새농민상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 지역 농업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현장 중심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이우광 조합장, 권은석·이희자 농가, 벼 중심의 전통적 농사 방식에서 나아가 밀·보리 이모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며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국산 밀과 보리 재배면적을 꾸준히 확대하고, 파종부터 수확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은석·이희자 농가는 "땅을 지키는 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을 실천해 온 노력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벼·밀·보리 재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이번 새농민상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 지역 농업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현장 중심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이우광 조합장, 권은석·이희자 농가, 벼 중심의 전통적 농사 방식에서 나아가 밀·보리 이모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며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국산 밀과 보리 재배면적을 꾸준히 확대하고, 파종부터 수확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은석·이희자 농가는 "땅을 지키는 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을 실천해 온 노력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벼·밀·보리 재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이번 새농민상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 지역 농업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현장 중심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이우광 조합장, 권은석·이희자 농가, 벼 중심의 전통적 농사 방식에서 나아가 밀·보리 이모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며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국산 밀과 보리 재배면적을 꾸준히 확대하고, 파종부터 수확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은석·이희자 농가는 "땅을 지키는 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을 실천해 온 노력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벼·밀·보리 재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농기원, 고구마 종순 육묘 중요성 강조

건강한 씨고구마 선택 온습도 관리 필수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고구마 재배의 성과를 좌우하는 종순 육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강한 씨고구마 선택과 철저한 육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씨고구마 심기 시기는 2월 하순부터 3월 중순까지다.

올해는 기온이 평년보다 일찍 오르면서 농가에서도 종순 육묘 준비를 서둘

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씨고구마는 검은무늬병 등 병해가 없고, 저장 중 냉해를 입지 않은 건전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또 재배 목적과 재배 방식에 따라 씨고구마를 심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싹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습도 관리가 필수다.

싹이 트기 전에는 온도를 30°C 안팎으로 유지하고, 토양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

하우스 안에 터널을 설치한 경우에는

씨고구마를 묻을 때 물을 충분히 줬다면 싹이 나올 때까지 터널을 유지해 온습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싹이 나온 이후에는 온도를 23~25°C 정도로 관리해야 하며, 유효기에는 고온으로 잎이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종순은 길이 25~30cm, 마디 수 6~8개 정도가 표준이다.

채취할 때는 밀동 2~3마디를 남겨야 새싹 발생이 좋다.

또한 채취 3~4일 전에 요소 1% 용액을 살포하면 종순의 품질을 높이고 활

작에도 도움이 된다.

서경원 작물식물과장은 "고구마 육묘장에서는 형태나 잎 색이 다른 개체,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묘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며 "농가에서는 종순 육묘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관리해 건강한 묘를 생산하고, 안정적인 고구마 생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앞으로 고구마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종순 육묘와 재배 기술 지원을 지속하고, 안정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우광 조합장, 권은석·이희자 농가, 벼 중심의 전통적 농사 방식에서 나아가 밀·보리 이모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며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국산 밀과 보리 재배면적을 꾸준히 확대하고, 파종부터 수확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은석·이희자 농가는 "땅을 지키는 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을 실천해 온 노력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벼·밀·보리 재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이번 새농민상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 지역 농업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현장 중심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이우광 조합장, 권은석·이희자 농가, 벼 중심의 전통적 농사 방식에서 나아가 밀·보리 이모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며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국산 밀과 보리 재배면적을 꾸준히 확대하고, 파종부터 수확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은석·이희자 농가는 "땅을 지키는 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을 실천해 온 노력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벼·밀·보리 재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이번 새농민상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 지역 농업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현장 중심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이우광 조합장, 권은석·이희자 농가, 벼 중심의 전통적 농사 방식에서 나아가 밀·보리 이모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며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국산 밀과 보리 재배면적을 꾸준히 확대하고, 파종부터 수확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은석·이희자 농가는 "땅을 지키는 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을 실천해 온 노력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벼·밀·보리 재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이번 새농민상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 지역 농업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현장 중심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이우광 조합장, 권은석·이희자 농가, 벼 중심의 전통적 농사 방식에서 나아가 밀·보리 이모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며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국산 밀과 보리 재배면적을 꾸준히 확대하고, 파종부터 수확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은석·이희자 농가는 "땅을 지키는 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을 실천해 온 노력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벼·밀·보리 재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이번 새농민상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 지역 농업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현장 중심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이우광 조합장, 권은석·이희자 농가, 벼 중심의 전통적 농사 방식에서 나아가 밀·보리 이모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며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국산 밀과 보리 재배면적을 꾸준히 확대하고, 파종부터 수확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은석·이희자 농가는 "땅을 지키는 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을 실천해 온 노력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벼·밀·보리 재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이번 새농민상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 지역 농업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현장 중심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이우광 조합장, 권은석·이희자 농가, 벼 중심의 전통적 농사 방식에서 나아가 밀·보리 이모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며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국산 밀과 보리 재배면적을 꾸준히 확대하고, 파종부터 수확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은석·이희자 농가는 "땅을 지키는 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을 실천해 온 노력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벼·밀·보리 재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이번 새농민상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 지역 농업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현장 중심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이우광 조합장, 권은석·이희자 농가, 벼 중심의 전통적 농사 방식에서 나아가 밀·보리 이모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며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국산 밀과 보리 재배면적을 꾸준히 확대하고, 파종부터 수확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은석·이희자 농가는 "땅을 지키는 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을 실천해 온 노력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벼·밀·보리 재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이번 새농민상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 지역 농업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현장 중심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전북TP,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참여기업 모집

스마트농생명산업육성 중소기업 제품 상용화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지역산업진흥원 및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 스마트제조혁신단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인 스마트 농생명 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도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기관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지역 내 산·학·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목적의 R&D(연구개발) 과제를 품목지정형으로 공모한다.

선정된 세부 과제당 21개월간 최대 7억 7천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공모 품목은 스마트 농생명 산업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경부하 농작업용 전기 구동형 다기능 농기계 플랫폼 개발과 △고효율 공조 기술 적용 전기 구동 농기계용 캐빈 개발 등 2개 지정 과제다.

특히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 및 기관은 R&D 자금 지원 외에도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이 운영하는 '스마트 오픈랩'의 최첨단 인프라를 활용한 강력한 기술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익산과 완주에 위치한 스마트 오픈랩은 고정밀 레이저 3D 스캐너, SLA·MJF·DED 방식의 산업용 3D 프린터, 산업용 엑스선 3D 스캐너 등 수

십억 원대에 달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은 이를 통해 제품 (역)설계, 시제품 및 목업 제작, 용접 결합 등 내부 비파괴 품질 검증(신뢰성·안전성)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아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북테크노파크는 참여기업의 성공적인 기술 상용화와 수출을 돕기 위해 △제품 생산 활성화(시제품 개선 등) △해외 기술 규격 및 인증 대응 기술지도 △해외 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 지원 등 다양한 비R&D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에 전동화 농기계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도 '스마트 오픈랩'에 구축된 장비 인프라를 활용해 (역)설계, 시제품 및 목업 제작, 품질

검증 지원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농기계 전동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기업들이 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글로벌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TP가 튼튼한 디딤돌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본 사업의 과제 접수는 오후 23시 오후 6시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KIAT 홈페이지 사업공고(게시번호 24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북지역산업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 '총력'

지역·구간별 집중 관리

전북도는 올해 인천 강화와 경기 고양에서 구제역(FMD)이 추가 발생하면서 질병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17년 이후 유지해 온 구제역 비발생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항체양성률 기준 취약 농장·지역·구간별 핀셋 관리 △백신 일제접종 후 모니터링 대폭 강화 △소 전입농가 기획예찰 및 도축장 출하 소 검사 확대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 페널티 강화 등 4가지 방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항체양성률 기준 취약 농장·지역·구간별 '핀셋 관리'를 실시한다.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을 기준

으로 농가를 우수·저조·미흡 3단계로 구분해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한다.

특히 예방접종 기록 및 백신 구매 이력이 저조하거나 반복적으로 미흡 판정을 받은 농가는 최대 연 4회의 강도 높은 검사를 받게 된다.

또 전년도 기준 항체양성률이 낮은 시군은 무작위 검사 물량을 20% 확대하고, 소 백신접종 취약 구간인 12개월령 이하의 검사 비율도 기존 25~40%에서 50% 이상으로 높여 취약요소를 집중 관리한다.

백신 일제접종 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상반기 일제접종을 이번 달 15일까지 조기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검사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최근 3년간 검사 이력이 없는

소 전입농가 전체(420호)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소 전입농가 기획예찰과 도축장 출하 소 검사를 확대한다.

백신접종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 전입농가의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5두 이상 출하 또는 거래 시 검사 의뢰 항목에 구제역 검사를 추가한다.

백신항체양성률 저조 농가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각종 축산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강력한 차등 적용을 통해 농가의 책임 방어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2026년 2월 전북도 소비자물가동향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지수 ↑ 생활물가지수 ↑ 신선식품지수 ↑

<자료=호남지방데이터팀>

전북중기청 '전주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특별공급

12일 오후 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지원에 나선다.

지난 5일 중소기업법무부 전북중기청 전세희 총장은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단 일반유형 주택, 무도유형 주택, 기타 주택,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 무도장 운영 대상은 제외로 분류된다.

특별공급 예정인 '전주 골드클래스 시그니처'는 전주시 덕진구 전북동 417-47번지 일원 일대에 건설될 예정으로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확정 9세대(예비 45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

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 3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및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전북지역 거주자만 신청가능하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정요소로는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보유, 수상경력,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국소년체전’ 전북대표 선발전 도내 곳곳 운영

5월 23~26일 부산서 개최...대표 선발 후 훈련비참가비 등 지원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전북 대표 선발전이 도내 곳곳에서 집중 운영된다.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오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북 대표 선발전은 지난 1월 배드민턴을 시작으로 3~4월 △초등부(12세 이하부) 20종목 △중등부(15세 이하부) 24종목 △통합부(e스포츠) 1종목이 진행된다.

관련해 초등부는 △육상 △수영 △축구 △야구 △소프트볼 △테니스 △소프트

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씨름 △유도 △검도 △양궁 △배드민턴 △태권도 △롤러 스케이팅 △바둑 △승마 등 24종목이다.

각 종목 선수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말 경기를 진행한다. 특히 도교육청은 대표 선발 후 선수들이 본 대회에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비와 참가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후원회 사무실 개소

천호성 후보 “아이들만 바라보는 교육” 강조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후원회 사무실 개소식이 지난 5일 오후 4시 전주백제대로 후원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천호성 예비후보, 김용현 후원회장, 여러 지역 인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전북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뜨거운 박수와 함께 힘찬 응원에 뜻을 모았다.

이에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아이들만 바라보는 교육! 전북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심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김용현 후원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오직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전북교육 희망을 위해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전북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

께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은 책상 위 행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호성 예비후보는 평생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어온 진정한 교육 전문가로, 화려한 말보다 실천과 소통으로 전북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전북교육의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천호성 예비후보는 “오직 아이들만을 바라보는 교육으로 전북교육의 희망을 다시 세우 도민과 함께 새로운 전북교육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익산시, 야구 윈터리그 성황리 폐막...동계 훈련지 ‘각광’

연세대학교 등 강호 15개 팀 참가

익산시가 처음으로 개최한 ‘2026 익산시 야구 윈터리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야구 동계 훈련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학 야구 동계 스톱브리그는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5일간 익산보조야구장과 완주야구장에서 진행됐다.

국내 명문 대학 야구팀과 유망 고교팀 등 총 15개 팀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리그에는 원광대를 비롯해 연세대, 고려대, 인하대 등 국내 야구 강호들이 대거 참여했다.

선수 400명과 지도자 40명 등 440여

명의 선수단은 리그 기간 동안 익산에 머물며 전력을 점검하고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특히 이번 성과는 익산시와 익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 원광대 야구팀의 유기적인 협력이 빚어낸 결과다.

지역 야구 기반 시설과 대학 야구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외부 선수단을 대거 유치하면서 민·관·학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대회 기간 중 프로구단 스카우터와 학부모 등 많은 관계자가 익산을 방문해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활기를 띠는 등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윈터리그를 통해 익산이 야구 훈련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성공적인 운영 경



2026 익산시 야구 윈터리그

<사진=익산시>

험을 발판 삼아 내년에는 리그 규모를 더욱 탄탄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연합회 정기총회 전북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전북에서 ‘2026년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전국 17개 광역문화재단 대표자 및 운영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하며, 글로스터호텔에서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6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와 심의 등이었으며, 이를 통해 광역문화재단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연합회는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통성당을 시작으로 풍남문, 경기전, 재단이 운영하는 문화공간 하안양옥집 등 핵심사 투어를 통해 전북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를 체험했다.

둘째 날에는 전북 전주의 도서관을



<사진=전북문화관광재단>

방문해 ‘책의 도시’ 전주가 추진해 온 특성화 도서관 정책과 도서관 기반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 문화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총회를 통해 광역문화재단 간의 협력 네트워크

를 강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했다”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군산대, 이차전지 분야부트 캠프 사업설명회 개최

국립군산대학교는 ‘2026학년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25년도 운영 성과를 공유와 함께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인턴십-견학 프로그램 △취업캠프 및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체계와 향후 운영 계획이 발표됐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이차전지 전구체 △재활용 △셀 분야의 고도화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또 사업단은 학생들의 실무 역량과 취업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군산대학교 이차전지 부트캠프 인력양성사업단의 ‘2026학년도 사업설명회’ 개최는 지난 4일 참여학과 재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신학기 감염병 예방 집중관리 기간 운영

집단감염 위험 직접 점검

전북도교육청은 2026년 신학기 감염병 예방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감염병 집중관리 기간은 학교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집단 감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오는 13일까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와 소속 기관의 감염병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 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감염병 예방관리 연간 계획 수립 및 방역물품 확보 △학

생·교직원·학부모 대상 방역수칙 준수 안내 △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검진 실시 및 확인 △매일 감염병 현황 파악 및 보고 철저 △초·중학교 신입생 필수 예방접종 홍보 및 이력 확인 등이다.

특히 학교별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 방역 체계 점검에 중점을 두고 교육청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과 해외여행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사항 등을 담은 교육 자료를 안내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남원시노인복지관

제10회 **글로벌**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
Senior Chunhyang

피어나다 남원

참가대상 • 만60세 이상 여성 (외국인 여성 특전 부여)

신청기한 • 2026. 3. 4.(수) ~ 4. 3.(금)

신청방법 • 남원시노인복지관 홈페이지 참조

접수방법 • 우편접수(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동로 50)
• 메일접수(unitas9988@hanmail.net)
• 방문접수

시상부문 • 대상 - 500만원 (기관추천 『대상(大賞)』 수상자 상금 중 20%는 추천기관에 지급)
• 금상 - 100만원
• 은상 - 70만원
• 동상 - 50만원
• 특별상 - 50만원
• 열정상 - 50만원 상당 상품

문의 • 063-625-9988

2026. 4. 30. (목) 13:00~17:00
춘향문화예술회관

주관

남원시노인복지관

공동주최

남원시

협찬

전민일보

협찬

전북일보

협찬

노블리즈뷰티아카데미

협찬

COVIX
Cosmetic Service Expert

군산시, 초등생 대상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 선착순 10명 모집

전북 군산콘텐츠팩토리가 초등학교 3학년생 대상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 교육을 오는 28일 운영하며, 참가자 1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생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참가 학생들은 애니메이션 영상에 맞춰 대사를 읽고 감정을 표현하며 성우가 돼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특히 아이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영상 속 캐릭터에 입혀지는 과정을 통해 표현력과 자신감을 키우고 콘텐츠 제작 분야에 대한 흥미와 진로 탐색의 기회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신청은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시청 및 군산콘텐츠팩토리 누리집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사공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재개...오늘부터 정기반 모집

정읍시가 미래 세대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신체 발달을 돕기 위한 '정읍사공원 유아숲체험원'을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유아숲체험원은 만 2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산림 교육 공간이다.

아이들은 전문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곤충을 관찰하고 흙과 나무를 만지는 체험 활동을 통해 정서와 신체를 조화롭게 발달시킬 수 있다.

올해 숲체험원은 오는 23일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간 운영된다. 정기반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보육 기관은 정읍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해 작성한 신청서(02-466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임윤희 산림복지과장은 "도심 속 아이들이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788대 지원 목표

정읍시는 올해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총 22억원을 투입하고 788대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조기폐차 734대(배출가스 5등급 361대, 4등급 363대, 건설기계 10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8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45대 등이다.

특히 올해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과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조기폐차 및 DPF 부착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참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DPF 부착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며,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도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후 차량 구매에 따른 2차 보조금 지원이 폐지됐다. 또한 4등급 경유차량은 2차 보조금 지원율이 30%로 조정되며 구매 지원 대상 차량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경유 제외)으로 한정된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정읍시청 자원순환과 방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통합돌봄 체계 구축 본격화

의료·요양·주거·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와 협약 체결

군산시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역 특화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식에는 군산의료원을 비롯해 모세병원과 차병원, 봄 요양병원, 동서병

원, 성신병원, 대한작업치료사협회전북특별자치도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전북특별자치도회, 군산시니어클럽, 사회협동조합합작사립, 군산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 전북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유한회사 지음 등 총 13개 기관이 참여해 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단기거주지원 △병원 동행서비스 △주거지원(주거개선, 대청소, 방역) △영양식사(맞춤형 영양지원), △반찬지원 △장기요양 재택료센터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등 군산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석한 한 기관 관계자는 "군산시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게 돼 뜻깊다"며 "사업 방향을 명확히 이해한 만큼, 시민

들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은 48.9%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과미래의 2025년 연구에서도 선호하는 임종 장소로 '자신의 집'을 선택한 비율이 48%로 조사돼,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지역 보건의료 5개 단체와의 협약에 이어 이번 지역특화사업 제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연계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촘촘한 통합돌봄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오늘부터 175억 원 규모 특례보증 추진

익산시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총 175억 규모의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 한도의 용자를 지원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NH농협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시는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지역 금융기관들과 1대1 매칭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 7억 원, 금융기관 7억 원 총 14억 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총 175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시는 신용점수 709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IBK미소금융채

단과 협력해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용자를 지원하고,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전액 지원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례보증과 이차 지원으로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뒷받침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희망키움사업, 창업 성공모델로 자리매김

창업가 45명·지식재산권 48건·매출 83억 등 성과

군산시가 청년 초기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창업 희망키움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창업 희망키움사업'은 유망 청년 예비창업자와 창업 5년 미만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초기 투자비와 창업활동경비, 맞춤형 컨설팅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 군산시가 산업·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당시 정부 지원으로 시작됐으며, 2022년부터는 지자체 예산으로 현재까지 지속 운영하고 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총 4개 기수, 45명이 참여했다. 누적 성과를 보면 총매출 약 83억 원을 기록했으며, 3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상표권 등록 27건, 특허 출원 15건, 디자인 등록 6건 등 총 48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며 기술 경쟁력도 강



2025년 롯데몰에서 개최한 창업 팝업스토어

<사진=군산시>

화하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문화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 산업 구조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식품 제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단순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반기별 현장점검과 1:1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해 사업 전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군산시는 3월 중 '창업 희망키움' 8기 참여자를 신규 모집해 창업활동비 지원과 전문가 멘토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 정착하는 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2025년 방문객 3459만명 돌파

전년 대비 2.6% ↑ 총소비액 4460억 기록

정읍시가 통신사와 카드사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정읍을 찾은 방문객 수와 지역 소비액이 전년 대비 각각 2.6%, 2.7% 증가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읍시 전체 방문객은 총 3459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87만 명 늘었다. 특히 외지인 방문객이 1177만 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4.7%(약 53만 명) 증가하며 전체적인 관

광 수요 상승을 이끌었다. 시기별로는 2월과 9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방문객이 고르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내장산 단풍이 절정에 달하는 10월과 11월에는 외지인 방문객이 전년 대비 약 45만 명(19.2%) 뛰어들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단풍 성지'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유입 지역은 전북이 45.2%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4%, 광주 11.6% 순으로 나타나, 인접 지역의 탄탄한 수요는 물론 수도권 체 방문객의 발길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방문객의 발길은 실질적인 지역 상권의 활력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정읍시 지역 내 총소비액은 4460억원으로 2024년(4342억원) 대비 118억원(2.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관광 소비액이 1.7%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값진 성과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분석 결과는 정읍시가 사계절 쉼 없이 발길이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라며 "앞으로도 통신·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방문객 특성을 세밀히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태로 지역 생활 인구 증가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시민과 함께 만드는 '녹색정원도시 익산'

나무 나눔 사전 접수 시작

익산시가 제81회 식목일을 앞두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녹색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나무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익산시는 '2026 나무 나눠주기 사업' 사전 접수를 오늘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정원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나무를 키우고 가꾸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총 2,33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3주씩 총 6,990주의 식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배부 식물은 △로즈마리 △고무나무 △행운목으로, 실내외에서 비교적 쉽게 기를 수 있으며 공기정화 효과와 함께 행운·건강·재물을 상징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사전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식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나무 나눠주기를 통해 시민들이 가정에서 직접 식물을 키우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기정화와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민 참여형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작은 화분 하나를 가꾸는 일이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도시를 푸르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나무 나눠주기를 계기로 많은 시민이 생활 속에서 행운·건강·재물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당부

청원 전체회의 개최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이 시장 부패에 따른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일 오후 4시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5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7일 김영민 군산시장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하며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공직 사외의 분위기를 다잡고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민 권한대행은 봄철 해빙기 안전 관리 등 현장 중심 행정과 다

가오는 6.3 지방선거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김영민 권한대행은 "선거법 위반 등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오해를 살 만한 행위를 철저히 경계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군산시를 지탱하는 힘은 여기저기 따라, 공직 사외의 분위기를 다잡고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첨단과학산업단지 부지 확장 본격화

주민설명회 완료

정읍시가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340억 원을 투입하는 6만 평 규모의 '첨단과학산업단지 부지 확장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며 미래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선포했다.

시는 지난 4일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발 및 실시계획구역 주민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기초조사 및 보상 계획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부지 확장 사업은 입암면 신면리, 신정동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40억 8000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확장 규모는 19만 5727㎡(약 6만 평)에 달한다. 시는 이를 통해 기존

산업단지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형 첨단 산업군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확장을 통해 인근 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탄탄한 첨단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부지 확장 사업이 본격화되면 정읍시의 장기적인 성장 로드맵에 맞춘 미래 첨단산업의 토양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는 기업 유치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기초조사 및 보상 계획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시는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남은 행정 절차를 속속히 추진해 전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유망 기업들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보험 혜택

내년 3월 1일까지 보장

익산시가 전국 어디서나 시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의 보장 기간은 내년 3월 1일까지이며, 등록 외국인인을 포함한 모든 익산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탑승 중이거나 보험 중 자전거와 충돌했을 때도 보장된다. 또한 익산 외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라도 익산시민이라면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현행법과 보험 약관 등에 따라 △사망 1,300만 원(만 15

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최대 1,300만 원 △상해위로금 30만~7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만 14세 미만 제외)이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로 직접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보험 혜택 등은 익산시 도로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취지에 걸맞게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보험에 가입했다"며 "예상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시, 청년 지역정착 돕는다

12개월간 총 360만원 정착 지원금 지급 오는 20일까지 신청

김제시는 관내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2026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12명의 청년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총 360만원의 정착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3월 5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청년으로 농·임·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의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하고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으로 청년 연령기간 동안 도내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2026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모집 포스터 <사진=김제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0일까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홈페이지(ttd.ewwel.com)'에 접속해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추진으로 청년들의 안

정적인 지역 정착과 성장을 돕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에서 건전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농민 공익수당 접수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김제시는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 시·군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면적 1,000㎡ 이상 농가 또는 양봉농가(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또는 혼합 30군 이상) 등이 해당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전년도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 및 산지 관련

과태료 처분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시행 지침에서 정하는 이 행정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 내 농업인이 1인일 경우 6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30만원씩 지급된다. 지역화폐(김제사랑카드)로 연 1회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민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오는 20일 전통·현대음악 더한 신춘음악회 무대올려

전통국악, 민요, 판소리의 정서와 현대 음악의 감각을 융합한 '송소희X두번째달X오 단해 모던민요'가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K-POP 중심의 대중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지닌 민요, 판소리 전통예술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제시하고 전통의 맥을 잇는 국악인 송소희, 오단해와 국내 최초로 에스니퓨전 음악을 선보인 밴드 두번째달이 의기투합해 전통과 현대, 민속과 세계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예술적 언어를 만들어내는 공연이다. 특히, 현대적 사운드로 재해석 하는 형식으로 구성, 민요, 판소리의 서정적 선율을 유지하면서 바이올린, 만돌린, 아이리쉬 휘슬, 아코디언, 일리언 파이프 등 다양한 악기와 사운드를 활용해 모든 세대가 공감 할 수 있는 감각적 표현을 구현한, '태평기', '군밤타령', '사랑가', '진도아리랑' 등 다양한 곡을 우리 음악의 맛과 흥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10일과 1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김제시민(신분증지참)에 한해 현장에서만 선착순 판매를 하고 12일 오전 9시부터 현장 판매후 잔여석을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imje.go.kr/art>)에서 판매한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명창초빙 판소리 아카데미 운영

문화적 자산 확산·인재 양성

고창군이 판소리의 맥을 잇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 '2026 명창초빙 판소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2023년부터 시작된 아카데미는 올해로 4번째 이 어가고 있다.

신재효판소리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판소리의 전통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심화 교육 과정으로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제출제 훈장 가 △동주출제심청가 △민요 △고급 특강으로 구성된다. 각 유파의 소리 특징과 성음, 사설 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은 물론, 소리와 장단을 아우르는 통합교육을 통해 판소리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창군은 그동안 판소리 공연,

교육, 학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판소리 성지'로서의 위상을 다져왔다.

이번 명창초빙 판소리 아카데미 역시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전통예술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판소리의 고장이 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명창과 함께하는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전통의 맥을 굳건히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고창이 대한민국 판소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 명창초빙 판소리 아카데미는 현재 수강생을 상시 모집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무상 지원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김제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10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를 위한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업소에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지정현판 제공 △위생 물품 지원 △2년간 출입·검사·면적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시에는 2026년 1월 기준 총 47개소(매우우수 45, 우수1, 좋음1)가 지정 및 운영중이며, 이번 지원사업은 위생등급제 참여를 희망하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위생수준 진단, 평가 항목별 맞춤 개선방안 제시, 서류 준비 및 위생관리 체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위생등급제 컨설팅 참여 신청서와 약자서 등 서류를 갖추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3-540-1358), 이메일(jiynunfood@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위생등급제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내 음식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여성회관 교육 개강식 개최

여성 전문성 강화

고창군은 지난 5일 고창군 여성회관에서 '2026년 상반기 고창군 여성회관 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강식은 내빈과 수강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정을 이끌어갈 강사 15명을 소개하고 2025년 실적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245명 수강생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고창군 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ITQ컴퓨터 △스카피바리스타 △치매예방지도

사 등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한다. 또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AI 디지털세상 △어반스케이치 △하루 한끼 홈 브런치 등 취미 과정을 개설해 다채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하반기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네일아트 자격증반과 초보 중국어회화반을 개설해 수강신청 과정에서부터 군민들의 큰 호응과 신뢰를 얻었다.

김미란 고창군 인재양성과장은 "여성회관 교육을 실속 중심의 강의로 구성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중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개관

2번째 권역 거점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전북 고창군이 중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개관하며 권역별 농업 인력지원 체계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고창군은 지난 5일 공음면 선동리 일원에서 고창군수,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농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개관식'을 열었다.

중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2024년 전국 최초로 건립된 남부권 농업근로자 전용 기숙사에 이은 두 번째 권역 거점시설이다.

중부권 기숙사는 총사업비 6억9500만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2024년 상반기 농촌유류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과 연계해 유류 건물 1개동 리모델링을 시작한 뒤, 추가로 2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총 3개 동으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비교적 적은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사업 규모를 확장했다.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유류 시설의 기존 구조와 운치를 살리면서도 현대적 주거 기준에 맞게 개선해 근



지난 5일 심덕섭 군수가 중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창군>

로자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방치 공간 재생과 경관 개선 효과를 동시에 안겼다. 최소 비용으로 주거 안정, 지역 활성화, 행정 효율성을 함께 확보한 점에서 '저비용·고효율' 정책 모델로 평가된다.

앞서 2022년 280명 수준이던 외국인 입국자가 2025년 2월초부터 순차적으로

하반기에도 400여 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으로 총 3400여 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농업은 사람으로 지탱된다"며 "근로자와 농업인이 함께 웃는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권역별 기숙사 확충과 체계적인 인력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마사협 3개소 업무협약 체결

요촌·성산·신평 도시재생 상생 네트워크 구축

김제시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사협) 3개소가 지난 5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도시재생 상생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요촌마사협, 성산마사협, 신평마사협이 참여한 가운데, 성산마사협이 운영 중인 성산카페에서 개최됐다.

마사협은 지역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등을 운영 관리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설립된 성산마사협과 요촌마사협은 그동안 거점시설 운영과 지역사회 활력을 위한 축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신평마사협은 지난 1월 8일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는 등

법인 설립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마을조합 운영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개별 마을조합 중심의 운영을 넘어, 김제시 단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각 마사협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하는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김제시 도시재생사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 상호기부

노사 상생 협력

지역사회공헌 실천

고창군과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및 조합원들이 군산시청에서 상호 기탁식을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덕하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안남규 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해 상호 지지제간에 총200만원을 기탁했

다. 공무원노동조합은 노사 상생의 협력 파트너로서 공무원의 권익 향상에 힘써오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번에도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상호 기탁에 나서며 지역사회 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안남규 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상호 기부가 고창군과 군산시 지속적인 상생 발전을 위한 밑

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평소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로 지역발전에 힘써주고 있는 고창군과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청소년, 취약계층, 지역 활력 증진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금사업에 투명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계획이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 /고창=백종규 기자

성광영농조합법인, 고창군에 장학금 300만원 기탁

(제)고창군장학재단은 지난 5일 성광영농조합법인의 서영수(대표)·이선우·소윤상 씨가 지역 인재들의 밝은 미래와 성장을 응원하며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광영농조합법인 측은 평소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중시하며, 청년들이 꿈을 설계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이번 나눔을 결정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서영수·이선우·소윤상 씨는 "고창의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당당하게 성장해 나가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 후배들의 성장을 위해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는 성광영농조합법인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장학금은 고창의 미래를 밝힐 인재들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갈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순창군 '마이크로바이옴 거점' 기업 유치 나서

지식산업센터 입주 설명회 개최 바이오·발효기업 25곳 참여 공공임대형 집적화 거점 조성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입주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기업 유치를 나섰다.

진흥원 1층 연회장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관내·외 바이오, 발효, 농생명,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 2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식산업센터의 시설 구성과 입주 절차, 지원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잠재 수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센터의 시설 구성과 입주 조건, 선정 절차, 신청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이 소개됐으며,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됐다.

또한, 사무 공간과 비즈니스 공간 등 입주 환경과 함께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지원 연계 등 기업 맞춤형 지원 프



<사진=순창군>

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이어져 참석 기업들의 관심을 모았다.

총사업비 약 149억 원이 투입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생산·사무 기능을 갖춘 복합 산업 지원 시설로, 초기 투자 부담이 큰 유망 기업을 위해 '공공임대형'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공장형과 사무형 공간 등 약 33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 기업이나 기술 기반 스타트업도 비교적 안정적인 환

경에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순창군이 보유한 발효·미생물 산업 기반과 연계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의 연구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바이오 산업 집적화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센터는 오는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52회 춘향국악대전 경연사진 <사진=남원시>

남원, 제53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개최

퓨전·창작국악 규모 확대 명창부 대상 대통령상 수여

판소리 동편제의 발상지이자 '춘향가'와 '흥보가'의 배경지로 수많은 국악 명창과 명인을 배출한 국악의 성지 남원에서 국악 정예들의 한판 경연이 펼쳐진다.

남원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 남원아트센터와 사람의광장 일원에서 '제53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연은 판소리 명창부와 일반부, 청소년부를 비롯해 무용, 기악관악, 기악현악병창, 퓨전창작국악, 판소리 신인대전 등 총 6개 부분 13개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신설돼 참가자와 관람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퓨전·창작국악 부문은 올해 참가팀을 기존 5팀에서 10팀으로 확대하고 상금 규모를 상향 조정한다.

판소리 명창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 원과 함께 영예의 대통령상이 수여된다. 일반부 각 분야 대상 수상자들에게는 국무총리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권위 있는 상이 주어진다. 또한 판소리 고등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이, 퓨전·창작국악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회의장상이 각각 수여된다.

대회장인 최경식 남원시장은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이 전통과 권위를 이어가면서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봄철 관광지 '주목' 산수유·벚꽃·철쭉 봄꽃 릴레이

남원시가 계절 릴레이 꽃 명소로 여행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남원의 봄은 주천면 용궁마을을 가득 채운 노란 산수유로부터 시작된다. 3월 중순이면 고즈넉한 시골 산책길과 어우러진 산수유 군락이 사진작가들과 관광객들의 출사 명소로 각광받는다.

이어 4월 초·중순에는 광한루원 앞 요천둔치를 따라 끝없이 펼쳐진 벚꽃 터널이 장관을 이룬다. 특히 야간 경관 조명이 더해져 요천 강변은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야간 산책의 즐거움을 더한다.

봄의 정점인 5월에는 지리산 바래봉과 허브밸리 일대가 신록과 붉은 철쭉으로 물든다. 하단부에서 시작해 정상부로 이어지는 철쭉 군락은 최고의 산책 코스를 선사한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제96회 춘향제(4.30.~5.6.)' 기간과 맞물려 도심 전역이 화려한 꽃길과 포토존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전통문화의 향기와 봄꽃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남원만의 특별한 풍경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통 편의성과 효율적인 동선도 강점이다. KTX와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면 수도권에서 2-3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어 당일 또는 1박 2일 여행지로 제격이다. 시는 '산수유-광한루원-요천 벚꽃'을 잇는 3-4월 코스와 지리산허브밸리를 연계한 5월 코스를 전략적으로 홍보하며 여행 상품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6년 여행가는 달(4-5월)'과 연계한 숙박, 체험 등 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준비 중으로 봄철 관광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미래산업 '디지털 청년 창업' 집중 육성

AI·빅데이터 등 기술창업 육성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사업비

완주군이 디지털(4차 산업) 분야 청년 창업을 지역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 디지털 분야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입체(3D) 프린터, 서비스 플랫폼 등 디지털 기반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사업비를 지원해 기술 경쟁

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완주군에 거주하며 사업장이 완주군에 소재한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사업비는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으로 디지털 기술 구현을 위한 핵심 장비 구축, 시제품 개발, 특허·상표권 등록, 각종 인증 비용, 판로 개척 및 마케팅 등 사업화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3월 중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사업 타당성, 사업 수행 역량, 성장 전

략,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4월 중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이후에는 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디지털(4차 산업) 분야는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력 있는 청년 창업기업이 지역에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산단 '게임 열기'...참여형 e스포츠 페스티벌

LoL·스타크래프트 등 4종목 경기 홍진호·이윤열 근로자이벤트전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오는 21일에 완주군 둔산공원 일원에서 2026 완주 산단 e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완주문화재단 산단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며, 현장에서는 e스포츠 경기 관람을 비롯해 체험 프로그램, 이벤트, 푸드트럭 등이 함께 운영된다. 오후 8시에는 축제를 마무리하는 불꽃놀이도 펼쳐질 예정이다.

대회는 트리그오브레전드(5:5 팀전) △블롤스타즈(3:3 팀전) △스타크래프트(2:2 팀전, 빠른무한맵) △FC 온라인(1:1 개인전) 등 총 4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예선전은 완주군 내 PC방 등에서 진행되며, 각 종목별 통과한 팀과 참가자는 둔산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결승전에 진출한다.

결승전 당일에는 스타크래프트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 이윤열이 참여하는 특별 이벤트 경기가 마련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연을 공모해 선정된 참가자가 프로젝트와 함께 경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TBN 공개방송이 함께 진행되어 가수 변진섭, 전영록, 박강성 등이 무대에 오른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동 단위 지역 확대

융복합지원사업 올해 말 완료 공모 대응 사전 수요조사 실시

남원시가 2023년부터 4년간 읍·면 단위 에너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2026년 말 완료하고, 2027년부터는 사업 범위를 도시 지역인 '동(洞)' 단위로까지 전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를 보급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태양광(전기)과 지열(난방) 설비를 통합 설치한 가구의 경우, 연간 에너지

지 비용을 최대 80% 이상 절감하며 고물가 시대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지역 내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총 5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주민들의 자부담 비용을 최소화하며 지역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수혜 범위를 동(洞) 지역까지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 공모 대응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총 40억 원 규모(450개소 이상)의 사업 물량 확보를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공모에서 최고 등급 'A등급' 획득을 목표로 삼아 국비 지원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설치비 부담을 낮추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택용 태양광과 지열태양열 설비가 복합 설치되면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및 난방비가 크게 줄어들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선제적 공모 대응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남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 캐시백 12% 확대

설 명절 '15% 효과' 이어가 지역 소비 촉진 정책 지속

순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순창사랑상품권 캐시백 적립률을 12%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캐시백 적립률을 한시적으로 15%까지 상향 운영한 바 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2월 한 달간 15% 캐시백 혜택이 제공되면서 군민들의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골목상권 매출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된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3월부터 순창사랑상품권 캐시백 적립률을 12%로 인상해 지역 내 소비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설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15% 캐시백 정책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순창사랑상품권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13개 읍면 순회 '햇빛소득' 주민 설명회

참여방식 안내·사업 이해도 높여 농지·유휴부지 활용 논의

완주군이 지난 5일 비봉면을 시작으로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햇빛소득'마를 조성할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의 추진 방향과 참여 방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마을 단위 참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햇빛소득마을의 정책 취지를 비롯해 마을 단위 협동조합 구성 등 주민 참여 방식과 추진 구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농지, 유휴부지, 저수지 등 다양한 부지를 활용한 사업 절차를 상세히 공유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사진=완주군>

군은 앞서 실시한 수요 조사에서 39개 마을이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등 높은 관심을 확인한 만큼,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사업 이해도를 높여 실제 참여 마을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발전 수익이 주민에게 직접 환원되는 구조를 설계해 지역 소득

창출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 안내와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주민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남원시가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고령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0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포진은 발병 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신경통 등 심각한 합병증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둔 60

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시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지원 백신은 대상포진 생백신 1회 무료 접종 또는 사백신 2회 접종으로, 사백신의 경우 전체 백신비의 70%가 지원됨에 따라 시민들은 회당 53,000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접종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치매 어르신 낮 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완주군 치매안심센터가 경증 치매 환자의 중증화 예방과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 인지 건강 돌봄 공간인 '기억누리 쉼터'를 운영하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억누리 쉼터는 대상자들이 가정에만 머물지 않고 매주 화, 목요일 낮 시간 동안 센터를 방문해 사회적 교류를 넓히고 전문적인 인지 자극 프로그램과 돌봄을 받도록 돕는 공간이다.

군은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서비스 영역을 대폭 확대한다.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경천 건강증진실을 비롯해 지역 경로당과 개별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인지 프로그램'을 병행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군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임실군, 산불조심주간 맞아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임실군은 봄철 건조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산불조심주간'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예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장중심 홍보활동으로 추진됐다.

캠페인은 주요 시가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및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 인접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산불 예방 홍보물 배부 △불법소각 근절 안내 △입산시 화기물 소지 금지 홍보 △산불조심 어깨띠 착용 가두홍보 등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산불조심주간을 계기로 불법소각 행위 근절과 산불예방수칙 준수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 안성면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잔여 택지 분양

무주군이 안성면 공정지구(에코빌리지) 잔여 택지 9필지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분양 가격은 필지당 8천만 원~1억 1천만 원 선으로,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덕유산 나들목에서 2.5km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대전과 전주는 차량으로 1시간 이내,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2시간 거리다.

안성면 소재지까지의 거리도 약 2km로 근린생활시설 이용이 편리해 전원주택지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무주군은 오는 13일(10:00~16:00 / 공휴일 제외)까지 우편 및 팩스, 방문 접수(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지역재생팀 063-320-2765)를 진행하며,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주택 분양 공고 및 신청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http://www.muju.go.kr)→알림 마당→무주 소식→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양 자격은 지역 제한 없이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주로,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필지 경합 추첨 시에는 신청자 본인 이 참석해야 한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판매시설 기공식 개최

진안군은 지난 6일 오후 2시 진안을 단양리 산 29번지 일원(진안IC 앞)에서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기반조성 준공 및 판매시설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부지 조성 사업의 준공을 기념하고, 앞으로 조성될 홍삼 판매시설의 본격적인 착공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진안군 곳곳에 분산돼 있는 홍삼 판매시설을 한 곳에 집적화해 체계적인 홍보와 판매력을 구축하고, 진안 홍삼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로 선정됐으며 향후 진안 홍삼 산업 발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동부권 발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판매시설은 총 24개소 규모로, 지역 인삼·홍삼 농가와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푸드코트와 카페, 전문음식점, 편의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돼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첨단 항공우주산업 거점 도약

부군수 단장 '항공우주산업 투자지원 특별 전담팀' 구성 5개 분야 역량 모아

무주군이 '항공우주산업 투자지원 특별 전담팀(이하 전담팀)'을 구성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담팀(단장 노창환 부군수 / 5개 분야 7명) 구성은 현대로템(주)이 무주군에 3천억 원을 투자해 항공우주 분야 연구·제조·시험·양산을 아우르는 완결형 연구단지와 우주 발사체 엔진 제조 시설을 조성키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전담팀은 △투자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도시계획, △인허가, △환경, △기반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지원을 맡는다.

특히 민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 및 기반 시설 확충, 중앙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 대응 등을 포함한 '일스톱 행정지원 체계' 구축에 힘을 쏟는다.

'항공우주산업 투자지원 특별 전담팀' 운영을 총괄하는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무주군의 행정 역량이 현대로템(주) 무주기지의 성공적 정착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무주군에 조성될 세계적인 항공우주산업 기지가 지역의 산업 구조 변



무주군이 '항공우주산업 투자지원 특별 전담팀'을 구성했다 <사진=무주군>

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전체 면적의 78% 이상이 국립공원 및 수변 보호구역 등 개발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보전과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국내 대표 방산 대기업인 현대로템(주)과의 수시 협상에서 '요새'와 같은 지리적 이점과 행정적 지원을 적극 앞세워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현대로템(주) 무주기지 조성은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현대로템(주)(대표이사 이용배)과의 3자 협약(MOU)이 성사되면서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일원(760,330㎡ / 약 23만 평 규모)에 조성될 기지에서는 '초음속 터티드 램제트 엔진'을 비롯해 '극초음속 이종램제트 엔진', '우주발사체용 메인 엔진' 등이 생산될 예정이다.

무주군은 현재 '투자 선도지구 공모사업'을 준비 중이며, 민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 시설 지원과 인근지역 개발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성공 기반을 다지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폐슬레이트 철거비용 전액지원

4월~10월까지 사업 운영

임실군이 군민 건강을 위협하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6년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사업을 전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한시적 시행 △사유지 포함 대상 확대 △자부담 없는 전액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전격 시행되며, 노후·방치된 석면 슬레이트를 집중 정비해 생활환경 개선과 군민 건강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면 슬레이트는 과거 건축 지붕재로 널리 사용됐으나, 현재는 1군 발암물질

로 분류되어 사용이 전면 금지된 유해 자재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2026년을 '폐슬레이트 집중 정비의 해'로 정하고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군은 사업종료 이후 별도의 연장계획이 없는 만큼 이번사업이 자부담없이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공공용지에 무단 투기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했던 것과 달리, 이번 사업은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해 공공

용지는 물론 사유지에 방치된 슬레이트까지 포함한다.

2026년 이전 훼손되어 방치된 슬레이트라면 수거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사용이 불가능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과 주변 잔재물에 대해 자부담 없이 처리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유해환경을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수거대상은 2026년 이전 훼손된 슬레이트 건축물과 주변 잔재물이며, 지원에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3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설가온농원, 관광농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농업관광체험 결합 복합 농촌관광 공간 조성

장수군은 지난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업회사법인 ㈜설가온농원과 관광농원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정현수 ㈜설가온농원 대표, ㈜광화문아미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관광농원 조성과 연계해

군민 편의 증진과 농촌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설가온농원은 협약에 따라 2027년까지 장수군 계남면 신진리 일원 약 2만 9천여㎡ 규모의 관광농원을 조성해 장수군에 공공 기여한다.

관광농원은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농업·체험·관광 기능이 결합된 복합 농촌관광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관광농원에는 전통식품 가공시

설과 농산물 체험장장을 비롯해 전시·판매관, 숙박시설, 카페,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험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될 전망이다.

관광농원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통해 장수사과 등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여 장수 전역의 관광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국가 보물 지정

"63년만에 이루어진 쾌거"

임실군 신평면 소재 진구사지에 있는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지난달 28일 국가 보물로 지정 고시됐다.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1977년 지방 유형문화유산(중기사 연화좌대)로 지정됐으며, 2003년 <임실 용암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2021년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으로 이름이 고쳐졌으며 2014년 중기사에서 진구사지 경내 보호각으로 옮겨져 오늘에 이른다.

임실군 담당자는 "이번 보물 지정은 1963년 <임실 진구사지 석등>이 보물



로 지정된 이후 63년만에 이루어진 쾌거"라고 그 의미를 밝혔으며, 나아가 "보물로 지정되기까지 석불을 아껴주

시고 보살피 주신 중기사 다현 스님과 용암리 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농가 일자리 지원 서비스' 추진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농촌지역에는 일손제공 역할

무주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내 일자리 마련에 주력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농가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군로컬잡센터(센터장 이상형 / www.mujujob.or.kr / 063-322-9297)에서 주관하는 이 서비스는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는 일손을 제공하는 '상생의 다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가 일 모아 플랫폼'을 활용해 전자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농업인과 구직자가 신속하게 연

결될 뿐 아니라 근로자 권리 보호와 농작업 효율성 향상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구직자는 단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돼 농작업 중 사고나 부상 등에 대한 보장을 받으며, 모자·장갑·토시 등 농작업 안전용품도 제공(최초 1회)받는다. 또한 농업인에게는 구직자 1인당 하루 1만 원(중식비 6천 원, 간식비 4천 원)이 지급되며, 관외 구직자에게는 교통비(1만 원)가 지원된다.

서비스 신청은 농작업 하루 전(평일 오후 5시 30분)까지 무주군로컬 JOB센터를 방문(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16 2층) 또는 전화(063-322-9297)로 하면 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 개최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방안 등 논의

장수군은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장수군전문건설협회(회장 이대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업 종사자 지원 확대와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축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 속에서 건설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지역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이대운 장수군전문건설협회장, 협회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건설업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타지역 업체 대비 장수군 지역업체 경쟁력 확보 방안 △최고급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발생

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농축산업 중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건설업 역시 지역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지역업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역업체가 타지역 업체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건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시세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장애인체육회,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과 맞손

무주군장애인체육회와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6일 장애인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장애인체육회장과 이종훈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장을 비롯한 두 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두 기관은 앞으로 장애인체육 프로

그램 운영 협력, 체육 활동 참여 확대,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역량을 모으 나갈 방침이다.

황인홍 무주군장애인체육회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체육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기쁨을 나누고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두 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2026년도 예산 및 지방보조금 실무교육 실시

장수군은 군청 군민회관에서 각 부서 예산 담당자 및 저연차 보조금 사업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 및 지방보조금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예산편성과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과 목적 외 사용, 부실 정산 등을 사전에 예방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예산회계 분야 전문가인 최기웅 서울연구원장이 강사로 나서 △2026년도 예산편성 주요 기준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실무

△예산회계 부정수급 사례 및 보조금 감사 지적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은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유의사항과 책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 군수는 "지방보조금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 지원 분야 또한 다양해지면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집행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예산과 보조금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남원YWCA,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연합 캠페인 전개

남원YWC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소장 장신화)는 지난 6일 오후 동중동 일대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연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사)남원YWCA와 신나는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뜻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거리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성차별과 폭력 없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장신화 소장은 "성별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 여성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여성의 인권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익산 삼성동 착한가게, 물품 기탁 등 따뜻한 나눔 이어져

익산시 삼성동에서 이웃을 위한 '착한가게'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져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삼성동은 착한가게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업체들이 정기 기부뿐만 아니라 물품 기탁으로 나눔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부흥떡방'은 정성껏 빚은 떡을 간식으로 지원하며 독거노인의 안부를 살피고 있다. '리가든'은 지역 아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식사 지원으로 행복 담은 한 끼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서동식자재마트'는 생필품과 식료품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있다.

한 착한가게 대표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일이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온다"며 "앞으로도 삼성동의 따뜻한 변화를 위해 나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대병원 따뜻한 진료에 어르신 손편지로 화답

다시 일어서게 해준 의료진 헌신에 온몸속여 감사전해

전북대학교병원에 지역 어르신 손편지가 전달됐다.

손편지 주인공은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지역 어르신이다.

어르신은 치료과정에 전해진 전북대의료진의 세심한 진료와 함께 따뜻한 배려를 잊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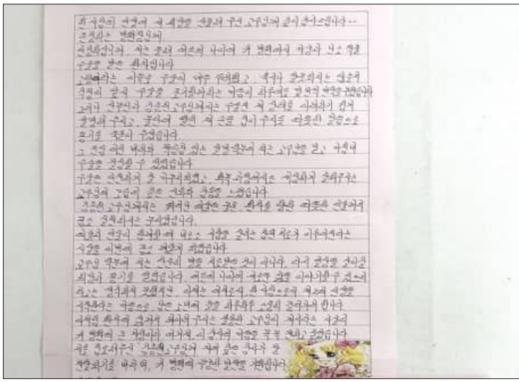
어르신의 편지글에는 "온몸속여 감사인사 드린다"란 글에 전북대병원은 눈시울을 붉혔다.

환자의 편지에는 "힘들고 두려운 시간 속에서 의료진의 따뜻한 한마디와 진심 어린 응원이 큰 힘

이 됐다"며 "치료 과정 하나하나를 성심껏 설명해주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슬과 인술이 함께할 때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참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되었다"며 "여든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시 일상을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얻어 남은 노년의 길을 하루하루 소중히 걸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환자치료에 정성을 다한 전북대병원 산부인과 김종현 교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인데 이렇게 마음을 전해줘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더욱 책임감 있는 진료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명태 기자



완주 이서면 연리지, 취약계층에 유정란 200판 기탁

완주군 이서면에 소재한 농협회사법인 유한회사 연리지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영양 지원을 위해 250만 원 상당의 유정란 200판을 이서면에 전달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이번에 기탁한 유정란은 이서면 내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 고루 전달됐다.

김성주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소미래 이서면장은 "매년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연리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유정란은 꼭 필요한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회사법인 (유)연리지는 그동안 이서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달걀을 후원하며 지역 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완주=김명곤 기자

정읍·고창 농축협, 고향사랑기부금 4,000만원 상호 기부

매년 지역발전 위한 기부참여

정읍시와 고창군 지역 농축협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두 이웃 지자체의 상생 발전을 한마음으로 응원하며 지난 5일 정읍시청에서 각각 4000만원씩을 교차 기부하는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김순기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장과 이미정 고창군지부장을 비롯해 두 지역의 6개 농축협 조합장들이 참석해 자

리를 빛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에는 정읍에서 샘골, 신대인, 정읍, 칠보, 태인, 황토현, 원예농협, 순정축협 등 8곳이 참여했다. 고창에서는 고창, 대성, 선운산, 해리, 흥덕농협, 축협 등 6곳이 동참했다. 각 지역 농축협 임직원들은 정성을 모아 상대 지자체에 4000만원씩을 기부하며 두 지역의 끈끈한 우정을 확인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장수군개인택시단위조합, 장학금 210만원 기탁

(재)장수군개항교육진흥재단은 장수군개인택시단위조합이 지난 5일 군청을 찾아 장학금 21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인재 육성을 위해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됐다.

1990년 출범한 장수군 개인택시단위조합은 현재 장수군에서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26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군민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나눔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1990년 출범한 장수군 개인택시단위조합은 현재 장수군에서 개인



김제 만경새마을금고, 취약계층에 성금 기탁

김제시 만경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일 만경새마을금고가 지역 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심시일 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 18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관내 저소득 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용택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주민들께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흥구 만경읍장은 "기탁받은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완주군청소년수련관, '가족 우쿨렐레 교실' 호응

완주군청소년수련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우쿨렐레 교실' 운영을 마무리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선물을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담임 교사의 우쿨렐레 연주 재능기부로 마련됐으며, 어린이와 보호자가 악기를 배우며 정서적으로 교감하도록 기획했다.

우쿨렐레 기초 이해, 코드 연습, 리듬 익히기, 가족 합주, 발표회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했으며 참여 가족들은 함께 연습하고 합주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유대감을 쌓았다.

서유진 아동친화과장은 "가족이 함께 배우고 연주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Water conservation campaign graphic with title "물 한방울의 소중함 우리의 미래를 지킵니다." and six icons with instructions: 수도꼭지와 변기파이프에서 물 새는곳은 없는지?, 양치,면도할때는 물을 받아서 사용!, 절수기를 사용해봐요! 수압밸브를 조절해 물을 아낄수 있어요, 설거지 할때는 물을 받아서 사용하세요!, 변기는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세탁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一事一言〉



신뢰가 생명인 검사·판사·기자·목사, 불신의 늪에 빠져(2)

송요훈
언론인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최저치(10점 만점에 2.75점)를 기록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선 5.24점으로 경총 뛰어 조사대상 기관 중에 가장 높았고, 만년 꼴찌를 기록하던 국회에 대한 신뢰도 높아져 여전히 불신 구간이긴 하지만 4.19점으로 대법원(4.11점)보다 높았고, 검찰 신뢰도는 3.06점으로 조사대상 기관 중에서 꼴찌였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신뢰는 높아졌고,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습니다. 국회와 아니라 여야를 나눠 정당별로 신뢰도 조사를 했다면, 국회 불신의 귀책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드러났을 겁니다. 다음 조사에서는 국회 신뢰도와 별도로 여야 정당별로 신뢰를 묻는 조사를 하면, 양비론의 정치 혐오에서 탈피하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신뢰도가 꼴찌로 추락한 이유는 수사로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를 협박하여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객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적을 제거하려는 마녀사냥 수사를 하고 정치적 기소를 한 사실이 드러나도 사과도 반성도 없습디다. 검찰을 개혁하라는 민심이 분노로 표출하는 와중에도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고 잔꾀를 부리고, 법 외곽죄 도입에는 막무가내로 반대합니다. 검사 선서문에 있는 '불의의 아들을 견어내는 용기 있

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는 그저 선서문에만 존재하나 봅니다.

법원 신뢰도가 똑 떨어진 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이 가장 큼니다.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어느 쪽에서도 불복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 판결이고 흡입을 데가 없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초고속으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정적'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봉쇄하려고 주도한 결정이었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정치였고, 광장의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파기환송을 배당받은 고법 재판부는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광장의 분노에 놀라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했지요. 애초에 대법원이 그래야 했습니다. 법원 불신은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겁니다.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판사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다르고 형량이 다를 수 있지만, 그 편차는 상식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래야 판결이 예측 가능하고 판결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조희대를 개혁하라는 민심이 분노로 표출하는 와중에도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고 잔꾀를 부리고, 법 외곽죄 도입에는 막무가내로 반대합니다. 검사 선서문에 있는 '불의의 아들을 견어내는 용기 있

비유하는 판결이나 '공천 주라는 데 말이 많네'라는 대통령 당선자의 육성 증거가 있는데도 정상적인 공천이었다는 판결은 일반의 상식에서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판결입니다. 마녀사냥이 명백한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유죄로 화답하는 판결을 존중하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재판소원이든 법관 증원이든, 사법부 개혁이 당위가 된 건 윤석열 눈에 빠진 '조희대 코트'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개혁에는 반대합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는데, 그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기자들이 언론 윤리를 신의성실하게 준수하면 징벌적 배상을 두려워할 일이 없듯이 법관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하면 격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호를 지키고 교통법규를 지키면 과속 난폭 운전을 할 수가 없고, 단속 카메라가 곳곳에 있거나 말거나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권력을 감시하는 독립 매체인 '뉴스앤조이'가 보도한 '한국 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보면, 교회를 불신한다는 응답이 75.4%였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정병오·신동식·이상민)이 올해 1월 초에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에 절반은 한국 교회를 극우로 인식했고, 그 이유로 △12·3 계엄 옹호(64.5%)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와 배타성(58%)

△권위주의 옹호(43.7%) △폭력적인 언어와 폭력 선동(43.3%)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높은 불신에는 누구보다도 전광훈, 손현보 같은 극우 성향 목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곡해하여 부와 명성을 얻은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의 책임이 클 겁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개신교 내부에서도 언론에서도 지식인 사회에서도 그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자초한 것이고, 사법 개혁은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자초한 것이고, 언론 개혁은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자초한 것인데, 내부에서는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나올 뿐 성찰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신뢰가 생명인 집단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 검찰, 법원, 교회를 불신의 늪으로 밀어 넣는 범인은 그 집단의 내부에 있습니다. 지금은 반발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계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내란 동조’ 공방, 전북의 정치 품격 떨어뜨린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 정치권에 불필요한 갈등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성명을 통해 '내란 동조' 의혹을 강하게 반박하며 허위 주장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두고 비전과 정책을 경쟁하는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근거가 불분명한 정치 공방이 앞서면서 선거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제의 발단은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지사의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당시 행정안전부의 청사 출입 통제 지시 이행 등을 거론하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노조에 따르면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야간 청사 폐쇄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보안 관리 절차다. 이를 두고 불법 계엄 동조나 내란 부역으로 몰아가는 것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왜곡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은 공직사회의 명예와 자존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호소로 읽힌다. 노조는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장에 지닌 공무원들이며 진실을 알고 싶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공직사회가 정치 공방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무원은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나 아니냐,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 주체다.

선거 과정에서 공직자를 정치적 프레임 속에 끌어들이려 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직사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 선거 전략을 위해 행정 현장을 정치적 공격의 무대로 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네거티브 공방이 선거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전북은 지금 지역소멸 위기, 산업 구조 전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새만금 개발, 미래 산업 유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역의 운명을 좌우할 굵직한 현안도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경쟁이다. 정책과 비전이 아니라 의혹과 낙인으로 시작되는 선거는 도민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한다.

지방선거는 지역 민주주의의 축제다. 후보자들은 서로의 정책과 역량을 당당하게 평가받으며 도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도민 또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냉정하게 판단할 권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품격 있는 선거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전북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미래 경쟁이다. 누가 더 전북의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누가 더 실력과 경험을 갖춘 지도자인지를 두고 정당당당하게 겨뤄야 한다. 공직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소모적 공방을 멈추고 정책과 비전의 무대로 선거를 되돌려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설계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경쟁이다. 정책과 비전이 아니라 의혹과 낙인으로 시작되는 선거는 도민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한다.

지방선거는 지역 민주주의의 축제다. 후보자들은 서로의 정책과 역량을 당당하게 평가받으며 도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도민 또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냉정하게 판단할 권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품격 있는 선거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전북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미래 경쟁이다. 누가 더 전북의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누가 더 실력과 경험을 갖춘 지도자인지를 두고 정당당당하게 겨뤄야 한다. 공직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소모적 공방을 멈추고 정책과 비전의 무대로 선거를 되돌려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설계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심곡사명부전지장보살좌상및권속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불교조각, 소조, 보살상
-지정일 - 2001년 9월 21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익산시 낭산면 장암길 113 (낭산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윤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6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원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고창지국 010-2258-3734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국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완주지국 010-3672-0308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수지국 010-8626-6049
정수지국 010-8626-6049	정수지국 010-8626-6049	정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섬진강 매화꽃을 보셨는지요 / 김용택

매화꽃 꽃 이파리들이
하얀 눈송이처럼 푸른 강물에 날리는
섬진강을 보셨는지요
푸른 강물 하얀 모래밭
날선 푸른 댓잎이 사운대는
섬진강가에 서럽게 서 보셨는지요
해 저문 섬진강가에 서서

지는 꽃 피는 꽃을 다 보셨는지요
산에 피어 산이 환하고
강물에 젖어 강물이 서러운
섬진강 매화꽃을 보셨는지요
사랑도 그렇게 와서
그렇게 지는지
출렁이는 섬진강가에 서서 당신도

매화꽃 꽃잎처럼 물 깊이
울어 보았는지요
푸른 댓잎에 베인
당신의 사랑을 가져가는
흐르는 섬진강 물에
서럽게 울어 보았는지요

시인 약력 : 1948년 임실 진메마을 출생. 임실 도 했다.
마암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썼 1982년 '창작과비평사'에서 펴낸 21인 신작 시
다. 교직기간 동안 아이들의 시를 모아 펴내기 집 '꺼지지 않는 햇불'에 '섬진강 1'의 8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6년 '김수영문학상', 1998년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다.



전북타임스 TIMES 자연보호 캠페인

전북의보물,
갯벌과 철새를 지켜주세요.

고창군, 2026년 농업 대전환 '품종·브랜드·인프라' 3대 혁신 추진

전북 고창군이 현장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영농 편의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펼친다. 2026년 고창군농업기술센터의 '품종·브랜드·인프라' 3대 혁신을 중심으로 한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들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쌀 품종의 세대교체, 브랜드 쌀 '수광1' 본격 전환
고창군은 2026년부터 기존 브랜드 쌀인 '수광' 품종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한 '수광1' 품종을 농가에 본격 공급한다.
수광1은 탈립성, 도복, 병해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신품종이다. 지난해 10월 품종 등록을 마쳤으며, 최고품질 쌀 품종으로도 공식 등록되어 고창 쌀의 브랜드 위상을 한 차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수박, '인증' 넘어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름값 높인다
이미 지리적표시제와 GAP 인증으로 품질을 인정 받은 고창수박은 2026년부터 '지리적표시 기반 고창수박 브랜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제값을 받는 유통 구조를 만든다. 단순 인증을 넘어 생산부터 유통까지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저탄소 농업 인증을 더한 '인증 3관왕'을 달성해 소비자가 이름만 보고도 믿고 구매하는 최고급 브랜드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 고창 아열대 작목 집중육성
고창군은 기후 온난화에 대비해 한라봉, 애플망고 등 7개 아열대 작목(3,72ha)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수광1' 쌀 품종 전환·수박 브랜드 고도화로 시장 경쟁력 압도 복분자 고사 대응·아열대 작목 육성 등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단순 시험 재배를 넘어 2026년부터는 '아열대 과수 소득화 시범사업'에 예산을 투입, 실질적인 농가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복분자 고사 위기 극복, 현장 실증과 신품종 개발 병행
지역 특화 작목인 복분자의 고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기술 대응책을 강화한다. 저온성 멸칭 필름 실증으로 토양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2026년부터 '첨단 육종기술 기반 차세대 복분자 신품종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 변화에 강한 신 품종 개발을 통해 고창 복분자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다시 세울 방침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장 밀착 농정으로 경쟁력 높인다
군은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올해 말까지 전격 연장하고 이와 함께 2026년에도 소형특수농기계(50명) 및 드론 자격(32명) 취득 교육을 이어가며 정밀 농업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영농부산물 무료 파쇄 지원사업'을 산림 연결 지를 중심으로 부산물을 직접 파쇄해 산물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선다. 격오지 마을을 직접 찾은 '찾아가는 순회 수리'를 통해 농기계 정비와 기술 지도를 병행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할 계획이다.

#유용미생물, '공급 체계 확대'로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다
고창군이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의 핵심인 유용미

생물 공급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군은 총 12억 원을 투입해 흥덕면 복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에 '복부권 미생물 자동 공급시설'을 신축한다고 밝혔다.

연간 1,100톤 규모의 미생물을 생산 중인 고창군은 그간 원거리 농가를 위해 '바로배송' 서비스를 시행해 왔으나, 복부권(성내·신림·부안·흥덕)의 수요 급증으로 공급 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신축되는 시설은 20여 톤 규모의 저장시설과 키오스크 자동공급 시스템을 갖춰 '주 5일 상시 공급' 체계로 운영된다. 시설이 완공되면 복부권 농가들은 대기 시간 없이 필요할 때 즉시 미생물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기존 배송 서비스의 과부하 해소로 군 전역의 공급 효율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가축분뇨 퇴·액비 '중금속 항목' 무료 분석 지원 확대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2026년부터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법정 검사 전 항목을 무료로 분석 지원하며 축산농가의 시름 덜기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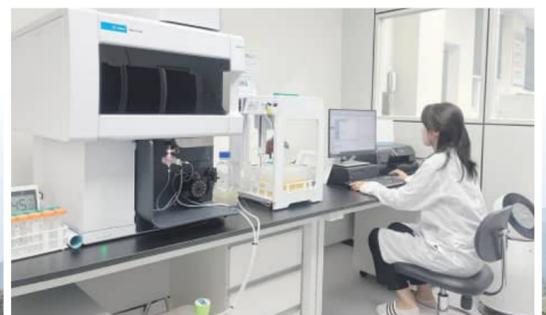
기존 가축분뇨 분석실에서는 부속도와 함수율만 무료로 지원했으나, 2026년부터는 '가축분뇨법'시행령에 따라 중금속(구리·아연)과 염분 항목을 추가해 분석 범위를 전 항목으로 확대한다.

축산농가는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할 필요 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윈스톱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군은 정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살포를 지도하여 토양 오염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대한민국 수박 1번지 지리적 표시(제116호) 고창군 수박 명품 소비 촉진 행사



전북특별자치도
작은마을축제 최우수 축제

제22회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축제**

맑은 산속, 건강 한 모금!
2026. 3. 14. 토 ~ 15. 일
진안군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삼거광장
문의처 : 063-430-2391~3

2026~2027
진안 100
방문의 해

주최 진안군
주관 진안고원운장산고로쇠축제위원회

홈페이지 QR코드